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WSJ: 금리 동결한 연준, 가장 느린 금리 인하를 원하지만...
- Bloomberg: 연준 이사 Cook, “AI가 미 노동생산성 향상” 시사

[주택]

- WSJ: 8월 주택 판매 속도 1월 이후 가장 느려

[미국 금융]

- Bloomberg: 오일가 94불로 둔화... 연준의 고금리 신호 탓
- JP 모건의 미국 금융: 미국 예외주의 비용 상승

[뉴욕시]

- SpectromNew1: 뉴요커들 생활비 걱정이 가장 크다

[자동차 파업]

- WSJ: GM과 Stellantes 공장 파업 확대... 포드는 추가 파업 유보

[인공지능]

- CNBC: UPS 택배 절도 단속에 AI가 사용되다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아마존, 새로운 경쟁자들에 도전받다
- CNBC: 맥도날드, 새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로열티 수수료 올려
- CNN Business: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위한 새로운 AI 도구 출시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WSJ: When Rates Drop, They Usually Plunge. The Fed Thinks Different.

금리 동결한 연준, 가장 느린 금리 인하를 원하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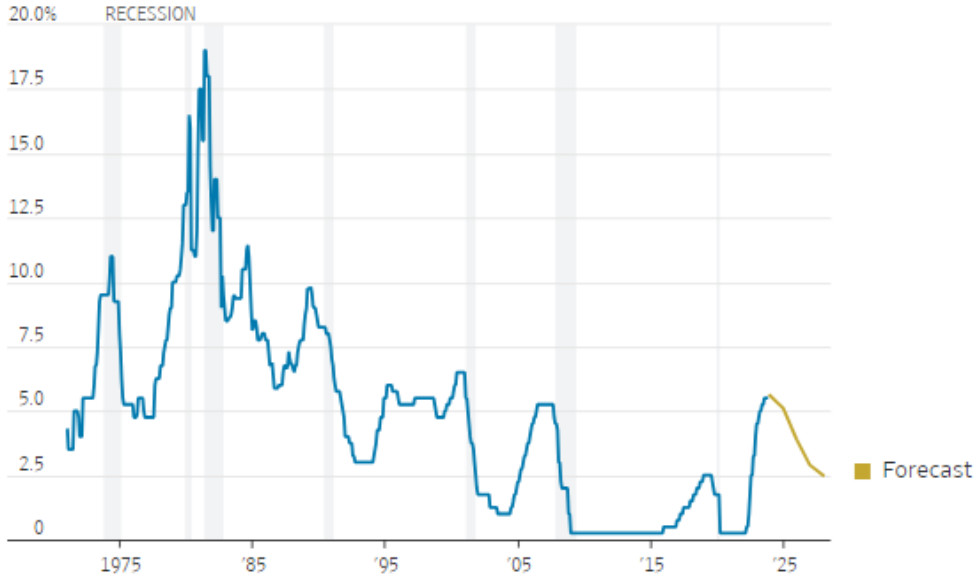
- 연준은 경제 연착륙 뿐만 아니라 사상 속도가 가장 늦은 금리 인하 사이클을 기대하고 있다.
- 즉, 경제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인플레이를 극복하겠다는 입장인데 더 강력한 성장과 실업률 감소를 예측했다.
- 투자자들은 금리 하락세가 당초 예상보다 덜 하락할 것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채권 수익률이 상승하고 빅테크 기업들에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했다.
- 그러나 시장은 연준의 예측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연준은 내년에 금리를 투자자들 기대보다 적게 인하할 것이지만, 일자리 감소없이 인플레이가 둔화함에 따라 금리 인하를 분산시킬 예정이다.
- 그러나 역사적 교훈을 살펴보면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다.

- 일부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후 금리 하락은 천천히 내려오기 힘들다는 것이다.
- 연착륙에 성공했던 90년대 중반에 연준은 경제가 호전되고 인플레이가 회복되면서 6개월만에 금리 인하를 중단했던 것이다.

Up the Stairs, Down the Elevator

When the Fed cuts rates, it usually slashes them. It expects to be different next time.

Federal funds target rate



Note: 'Longer run' forecast treated as 2027.
Source: Refinitiv (rate), Federal Reserve (forecast)

WSJ 기사

Bloomberg: Fed’s Cook Sees Signs of AI Improving US Labor Productivity

연준 이사 Cook, “AI가 미 노동생산성 향상” 시사

- 연준의 이사인 Lisa Cook은 인공지능이 노동 생산성을 향상 시킬수 있지만 경제에서 그같은 사용은 정책 결정자들에게 미해결의 많은 질문을 던진다고 말했다.
- 그는 “경제와 통화정책에 대한 인공지능의 여파는 인공지능이 단지 또 하나의 애플이 아니면 더 심오한 것인지에 달려있다”며 “경험적 증거는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생성형 인공지능이 여러 분야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증거들이 있다”고 말했다.
- 그는 오늘 금요일 토론토에서 열린 전미연구소(NBER) 주최 인공지능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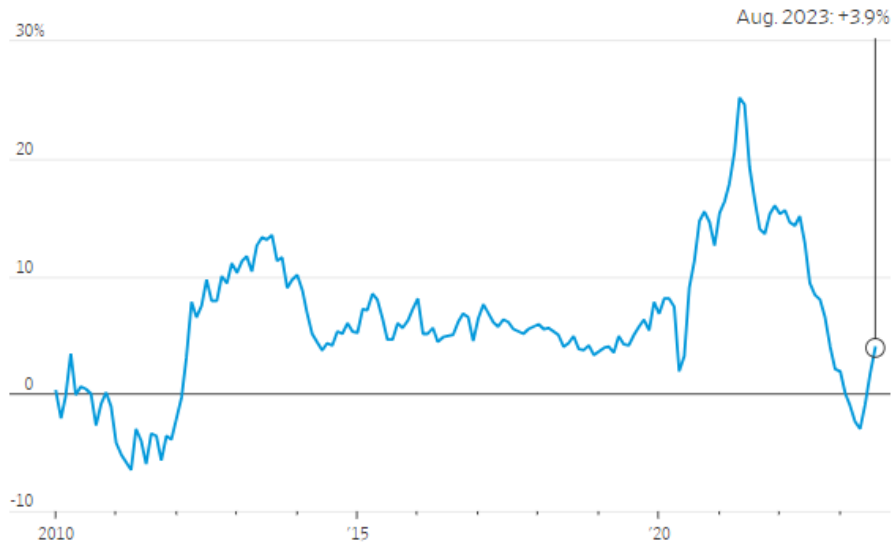
Bloomberg 기사

[주택]

WSJ: August Home Sales Declined to Slowest Pace Since January 8월 주택 판매 속도 1월 이후 가장 느려

- 8월 주택 판매가 또다시 감소, 올해 1월 이래 가장 낮은 판매 속도를 보이며 10여년만에 가장 힘들 주택 시장 슬럼프를 가속화하고 있다.
- 전미부동산협회(NAR)의 목요일 발표에 따르면 주택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존 주택 판매가 8월의 경우 전월과 비교해 0.7% 줄어 연율 조정치로 4백4만채를 기록했다. 전년도와 비교해서는 15.3% 감소했다.

U.S. median existing-home price, change from a year earlier



Note: August 2023 data is preliminary.
Source: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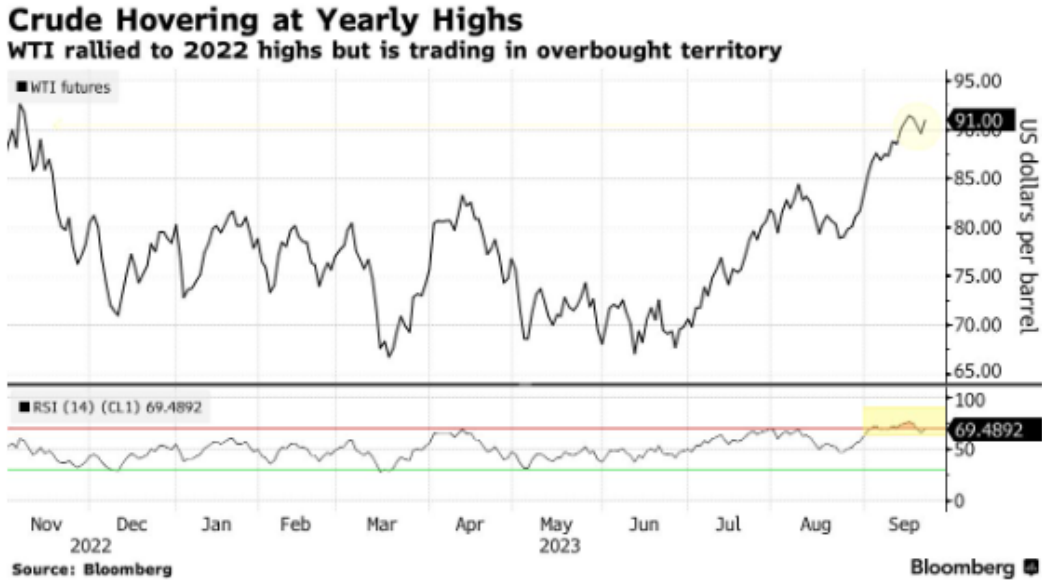
WSJ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Oil Rises Near \$94 as Tightening Market Vies With Hawkish Fed

오일가 94불로 둔화... 연준의 고금리 신호 탓

-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러시아가 디젤 연료 수출을 금지한다는 격동적인 한주를 마감하면서 연중 최고치였던 오일 가격이 둔화되었다.
- 러시아가 가솔린과 디젤 연료의 수출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해 가뜰이나 압력을 받고 있는 글로벌 연료 시장이 타이트한 가운데 연준이 더 오랫동안 고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신호가 오일 랠리를 둔화시키고 있다.
- 서부 텍사스 중질유는 올해 최고치를 기록한 후에 한달만에 처음으로 주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 여전히 원유은 현재 3분기에 치솟은 수준인데 사우디아라비아아 러시아가 금년 말까지 생산량 감소를 연장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JP 모건: The rising costs of US exceptionalism
미국 예외주의 비용 상승

- 10년물 실질 미국채 수익률이 2%를 돌파하며 중기 목표치인 2.5%에 빠르게 근접하고 있지만, 시장이 미국 재정적자에 대한 상당한 우려 때문에 쉽게 오버슈팅할 수 있다.
- 연준의 공식적인 인플레이 목표를 그대로 유지하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완전 고용 경제 요구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 급격한 탈세계화, 탈달러화, 미중 무역분쟁은 나타나지 않겠지만, 그 대신 특히 국가 안보 분야에서 금융 및 경제적인 노출이 서서히 다변화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 중국의 장기 성장에 대한 비관론이 커지면서 중국으로부터의 외국인 자금 유출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회복력이 있어 달러가 금년에 하락하지는 않지만 중기적으로 볼때 실질 기준으로 볼때는 40년 동안 최고치에다 지난 수년동안 안정적으로 평균으로 회복했기 때문에 낮아질 것이다.
- ESG는 성과에 대한 우려와 투명성 부족으로 특히 미국에서 도전을 받고 있다. 대신에 투자자들의 관심은 점차 기후 투자 증가, 새로운 기술에 포지셔닝, 그리고 극심한 날씨에 민감한 지역이나 부문에서 회피하고 있다

JP 모건 보고서

[뉴욕]

SpectromNews1: Cost of living tops minds of New Yorkers in latest Siena poll
뉴욕커들 생활비 걱정이 가장 크다

- 많은 뉴욕커들은(57%) 뉴욕주의 삶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고 느끼면 적어도 응답자 80%는 생활 비용이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대부분은 현재 여론에서 앞서고 있는 대선 후보들은 향후 4년간 나라를 이끌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 이같은 발표는 최근 Siena College가 발표한 설문 조사 결과다.
- 27%는 주 지도자들의 선결 해결 과제는 생활비, 19%는 최근 이민자 유입 문제, 18%는 저렴한 주택, 17%는 범죄를 꼽았다.

SpectromNew1 기사

[자동차 파업]

WSJ: UAW to Strike at More GM and Stellantis Sites, Will Spare Ford **GM과 Stellantes 공장 파업 확대... 포드는 추가 파업 유보**

- 전미자동차노조(UAW)는 금요일 정오까지 GM과 Stellantis 공장에서 더 많은 파업을 시도할 예정이다. 그러나 포스사 노조원들은 노사간의 협의가 진정을 보임에 따라 추가 파업을 유보할 예정이다.
- 노조 위원장은 오늘 오전 스트리밍 연설을 통해 노조원들에게 20개주에 있는 39개의 부품 유통업체에 파업을 할 것이라고 알렸다. 동시에 포드사의 경우 회사가 더 나은 제안을 제공함에 따라 추가 파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WSJ 기사

[인공지능]

CNBC: AI is policing the package theft beat for UPS as 'porch piracy' surge continues across U.S. **UPS 택배 절도 단속에 AI가 사용되다**

- 매년 수억 개의 택배들이 도난당하고 있으며, 아마존부터 UPS(United Parcel Service)까지 기업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 UPS는 주소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배송지에 특정 주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암호를 부여하는 알고리즘 러닝 머신을 도입했다.
- 물류 기업들은 이런 AI 기술이 판매업자들이 택배를 보낼 때 언제, 어디로 보낼 것인지 판단시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물건을 받을 안전한 장소를 구매자에게 추천할 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연휴 시즌을 맞이해서 사전에, 소규모 업체들을 위한 새로운 AI 버전이 오는 10월 중순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CNBC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WSJ: Amazon's New Challenge: Bargain Retailers That Are Playing a Different Game**아마존, 새로운 경쟁자들에 도전받다**

-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쇼핑 플랫폼인 Temu와 Shein의 인기가 치솟으면서, 아마존이 놀라고 있다. 이에 아마존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 중국에 뿌리를 둔 Temu와 Shein은 빠르게 배송되지 않더라도 저렴한 상품을 원하는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있다.
- 특히나, 인플레이션에 의한 가격 상승에 민감한 미국 소비자들이 저렴한 상품을 위해 이들 기업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 횟수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 분석업체 Comscore의 추정에 따르면 Temu와 Shein이 2022년 9월 출시된 이후 미국 소비자의 Temu 웹사이트 및 앱 월간 방문 횟수는 3월까지 10배 증가해 약 7천 50만건에 달했다.

WSJ 기사

CNBC: McDonald's to raise royalty fees for new franchised restaurants for first time in nearly 30 years**맥도날드, 새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로열티 수수료 올려**

- 맥도날드는 내년 1월 1일부터 로열티 수수료를 4%에서 5%로 인상한다.
- 맥도날드가 로열티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은 거의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미국 내 맥도날드 매장 13만 4천여개 중 95%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맥도날드의 업체로서 영업을 하기 위해 연례비나 모바일 앱 사용비 뿐만 아니라 임대료 그리고 달마다 로열티를 맥도날드에 지불하고 있다.
- 로열티 비용 상승은 당장으로는 많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영향을 주진 않지만, 맥도날드와 가맹점 간의 관계가 좋지 않아 반발이 있을 수 있다.
- 맥도날드와 가맹점들은 내년까지 패스트푸드 직원들의 임금을 25% 늘리는 California 법안과 새로 도입된 식당 평가 시스템으로 인해 많은 충돌 빚어왔다.
- 이런 상황에도, 맥도날드의 미국 사업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 가장 최근 분기에 미국 내 매장 매출은 10.3% 상승했다.

CNBC 기사

CNN Business: YouTube unveils a slew of new AI-powered tools for creators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위한 새로운 AI 도구 출시

- 어제 목요일 유튜브가 새로운 인공지능 기반의 기술을 선보였다. 이를 통해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은 동영상을 만들거나 자신이 만든 동영상을 더 많은 시청자들에게 홍보할 때 도움을 받게 된다. 이러한 배경에는 많은 기업들이 생성형 AI 기술을 핵심 제품에 서둘러 적용하려는 경쟁이 원인으로 보인다.
- 유튜브는 또한 크리에이터가 비디오를 만들 때 브레인스토밍이나 개요 초안을 작성하거나, 설명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한 음악을 검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AI 기반 도구도 공개했다.
- 생성형 AI의 부상은 기술 업계와 더 많은 대중에게 활기를 불어넣었으며, 최근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최근의 유행어가 되었다.

CNN Business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블랙록 CIO "연준, 내년 하반기 2회에 걸쳐 금리인하 시작"

"인상 주기 종료 근접...올해 1번 더 올린 후 한동안 관망"
"노동시장 냉각으로 임금·서비스 인플레이션 완화" 전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채권부문 최고투자책임자(CIO)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내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를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의 전망은 연준의 긴축 기조가 확인되면서 금리 인하 시점이 내년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늦춰지고, 횡수도 2차례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확산하는 가운데 나왔다.

블랙록에서 자산 약 2조4천억 달러(약 3천200조원)를 관리하는 릭 라이더 CIO는 연준이 금리를 동결한 다음 날인 21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비즈니스 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